

광주시, 금호타이어 대응 ‘민관합동 TF’ 확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특별팀(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특별팀(TF) 운영방식을 보완·강화해 노동계, 협력업체, 피해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화재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1차 회의를 통해 월 2차례 정례회의를 개최기로 했으며, 시민 체감형 지원책 마련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광주시 관계부서를 비롯해 시의회, 광산구, 금호타이어, 경제단체, 환경전문가, 주민대표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분과별로 ▲협력업체 지방세 지원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2차 환경피해 예방 조치 등을 논의했다.



협력업체·주민 등 참여 2차회의… 4개 분과별 실무논의 강화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2차 환경피해 예방조치 등 집중점검

또 ▲소상공인·협력업체 지원대책 ▲공장복구 행정절차 단축 ▲협력업체 노동자 권리보호 ▲중금속 등 분석결과 공개 ▲장마철 대비 오염물질 하천 유입차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통해 종합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민관합동특별팀 회의를 정례화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도일 기자



서구, 주민과 함께 침수 취약지 사전 점검

안전보안관·자율방재단과 침수피해 예방 활동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여름 장마에 앞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사전 방재활동에 나섰다.

서구는 20일 안전보안관 76명과 18개 동에 편성된 자율방재단 281명 등 점검단 350여명과 함께 침수 피해 예방활동을 펼쳤다.

안전보안관들은 수해 피해가 잦은 곳과 급경사지 및 하천변 도로 등 침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자율방재단원들은 각 동지역 내 빗물받이와 배수구의 이물질 제거에 빗물이 원활하게 빠지도록

했다.

서구는 각 동별로 설치된 빗물받이를 상시 관리하도록 하고 오·우수관의 신속한 정비와 보수조치 등 빗물의 통수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예년보다 길고 많은 양의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해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내 집 앞 빗물받이가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장난감도서관으로 장난감 빌리러 가기 전에 구청 홈페이지에서 보유 현황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내 2곳의 장난감도서관 물품 현황과 대여 가능 여부 등을 한눈에 파악하는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구립 장난감도서관 온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남구는 지난 5월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구립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각종 정보를 담은 데

광주 남구, 장난감도서관 대여 현황 ‘한눈에’

구청 홈페이지에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편의성 높여’

이터 업로드 작업을 최근에 마무리 지었다.

장난감도서관 전용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는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내 장난감도서관 2곳의 물품 보유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장난감 대여 가능 여부도 조회할 수 있어서다.

또 장난감도서관의 위치와 반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장난감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다가 발견을 되돌리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홈페이지 연결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 복지정보 메뉴에서 여성·아동복지 장난감도서관 코너를 누르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대여를 희망하는 장난감을 검색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대여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 및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방림1동과 양림동에서 방재물 장난감도서관과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 2곳을 운영 중이며, 방재물 장난감도서관과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에는 각각 장난감 540종 1,117점과 501종 775점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장난감도서관 2곳에서 장난감을 빌린 주민은 2,61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에게 제공한 장난감 대여 건수는 3,133건이었다.

/*임채일 기자

북구, ‘광주 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용봉’ 본격 운영

15~39세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 맞춤형 취·창업 프로그램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거점 공간인 ‘광주 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용봉’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광주 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용봉’은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인 취·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 친화 공간으로 행복어울림센터(북구용봉로 105) 5층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개소식을 개최하여 공간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으며 이날 개소식은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지역의원, 청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식 ▲경과보고 ▲피포먼스 ▲청년 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앞서 북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광주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이때 확보한 국비 7억 원에 구비를 더한 총 8억여 원의 예산을 이번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광주 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용봉’에서 청

년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미취업, 이직, 창업 준비 등 구직 청년의 특성에 맞춘 진로 탐색, 구직 준비 로드맵 설계, 실천 취업 역량 강화, 경력 재설계 등이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 분야를 특화 과정으로 지정하고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창업 준비 정도에 따라 예비, 초기, 도약 등 3개 과정으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15~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북구가 제공하는 맞춤형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은 북구 청년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 062-410-6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취·창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거점 공간인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을 조성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청년이 행복한 북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전남도, 적조 피해 제로화 대응 체계 점검

26일 여수 화태해역서 민·관 합동 실전대응훈련 예정

으로 정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와 어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함께해 피해 최소화해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조 대응 장비 등 5개 분야 사업에 총 299억 원을 지원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적조 발생 이전부터 양식장과 방제장비를 점검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필요시 긴급 방류를 유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조 발생 시 황토 살포와 산소공급장비

를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적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했다. 국립수산물학원과 해양수산과학원에는 예찰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합동 조사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는 해상·항공 예찰 및 방제자재 운송 지원을 요청했다. 수협에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대응 요령 홍보를, 각 시군에는 방제장비 점검과 비상 대응체계 유지를 통해 도와의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또한 적조 이후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

른 이중 피해를 막기 위해 유통업체와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등 소비촉진 대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대응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 여수 남면 화태해역에서 민·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을 할 예정이다. 적조와 고수온에 동시 대비하는 합동 훈련으로 진행되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학원, 전남도, 여주시, 해양수산과학원, 해경,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해 예찰, 상황 전파, 황토 살포, 수류 방제 등 모든 대응 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염선호 기자

